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로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삶을 경축하는 이들의 만남의 기회입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최하는 예수포럼이 20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우리교회(청과)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카리스마타 수도원 원장이신 박효섭 목사님이십니다.

속장 인도자, 주방 봉사자, 도서관 봉사자들이 중복 피산에 있는 <큰바위얼굴조각공원>으로 모처럼 나들이를 떠납니다. 10월 21일(화) 오전 9시30분에 출발합니다.

매달 두 주 목요일 저녁에 전성은 선생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하십니다. 이번 주 23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시작합니다. '신앙 다지기'는 중고등부실에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이 삼각산(북한산)을 오릅니다. 25일(토) 오전 9시까지 교회로, 구기동 주차장까지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독서모임은 한 주 쉽니다.

11월 2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7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초록장터가 11월 9일 열립니다. 이를 위해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의류잡화,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도서류, 음반, 비디오테이프, 연습용 악기, 발레용품 등 많이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교우가 담당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 25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주시시오.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돕기 위해 몸을 낮추며 한 주간을 사십시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선물로 주시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자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지만, 늘 새로움을 주시어 다시 한 번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못 영혼 달랠 수 있는 은은한 국화향이 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의 소리에 쉽게 귀기울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염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깨끗한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욕심으로 오그라든 손을 펴주십시오. 더 가지려는 손길을 멈추고 더 나누려는 손길을 펼치는 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김재홍 최희영 박병구 박애순 이성운 김순복 전영웅 임주빈 최현옥
정은영 광경선 김준호 권미숙

월정현금:

김영순 송임희 전영자 이광섭 김수연 박준규 서지영 유증희 이재문

감사현금:

윤정덕 구성실 최종훈 김금화 박애순 김민정 백숙현 백성래 정복순
박병구

녹색꿈현금 : 김기석 양재성 장원호 박성희 무명1
(누계: 4,666,000원)

	장혜숙	장혜숙	김정섭	송임희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배부례
	임정자	임정자	이은옥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옥순	문금석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김춘려
	박효선	허정윤	야외	임미심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이갑재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유영남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현주
	백혜숙	정옥영	김시영	백혜숙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유혜경	배상순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박수경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면 기운이 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슬픈 일이 있어도 희망이 솟아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아무리 제게 못할 짓을 한 사람이 있어도
 단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저의 배반과 변덕, 심술, 오만을 다 용서해주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스스로 어둠의 나라를 만들어
 저와 이웃을 가두는 일을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부활로
 온 세상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온 존재로 알게 해주십시오.
 부활은 당신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이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돕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십시오.
 아멘.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크다며 무기력하게 지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른땅에 샘물을 내시고, 황폐한 곳에 숲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수고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성도의 사경!	기도 / 박미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권 순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중수 박범희 고숙이 박미영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안홍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이 믿음을 키우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삶은
튼튼한 믿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그냥, 그냥 별 수 없이 살아남는 것은 맥빠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모두 집단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겨우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대는
믿음을 상실한 세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몸을 입고 태어났고,
그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길보기 멀쩡하게 자랐습니다.
따뜻하게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힘드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튼튼한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삶의 힘이 없어,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무얼 위해 사나?” 합니다.
보살피는 어른이 아이를 존중해 주는 사랑, 믿음, 희망이 전달되어
아이가 튼튼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한
안정된 믿음의 태도를 기본으로 갖추게 합니다.

어른 여러분!
저마다 다른 아이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믿어 주었던가요?
저마다 다른 꿈을 아이들이 탐색하고 추구해가게 놔두었던가요?
저마다 다른 아픔과 힘든 일을 참아갈 여지를
아이들에게 남겨 주었던가요?
저마다 다른 아이들 나름의 삶의 공간을 지켜 주었던가요?
이 물음에 온통 ‘아니오’ 한 어른과 ‘아니오’를 당해 온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자기 모습을 싹 지워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삶을 온통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꿈일랑 말끔히 접고,
남들이 하는 삶을 덩달아 따라합니다.
저마다 책임져야 할 버릇을 키우지 못하고,
불평으로 삶을 지새웁니다.
(오호라! 한창 젊은 나이, 대학 신입생으로 남 따라 술 마시다가 죽어갑니다.)
저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뒤범벅되어 구분하지 못하고 삽니다.
(성형 수술로 남과 구분이 안 될수록 자신감 가진다는 역설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집니다.
남의 흉내 내지 않고,
남다른 소리 내고,
남다른 짓 하는 것을
사랑스레 보아주고 믿어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가능한 것 같았던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풀이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서로 있는 그대로 믿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알아주고 믿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만치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문은희)

작은 티끌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피조물입니다. 바람과 모래, 별과 사람의 이면을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과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의 눈에서 마음의 눈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만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하며 바라본다면, 잡초를 보며 앞으로 피어날 꽃을 생각하고, 매일 아침을 새로운 세상의 개벽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의 파도를 우주의 심장박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